

요한계시록과 형상 언어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잘못된 종말론적 시각을 교정할 수도 있다. 종말은 단순히 역사의 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박두환 _ 나사렛대학교 신약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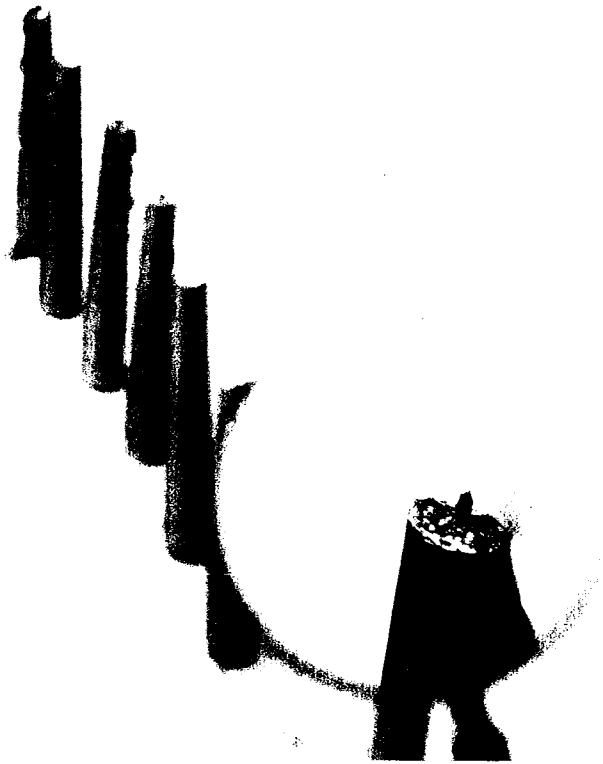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교회의 근·현대사를 통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경의 무력함, 특히 요한계시록의 무력함에 빠지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위태로운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맹신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 교회의 신비주의다. 이런 요인들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맹신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성경의 계시적 권위와 균형을 잃은 채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뿐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시켜 결국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상 언어의 이해로 본 요한계시록의 해석

또 다른 요인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 때 한국 교회사에서

요한계시록은 신비로운 요인들로 인해 맹신되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저하고 있다. 결국 한국 교회를 지배해 온 잘못된 해석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극단적 합리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대 학자들과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비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화적 내



용뿐 아니라, 수없이 발견되는 형상 언어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을 제기하며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들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로 인한 신앙적 위기와 절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언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달리, 상징이나 은유들과 같은 형상 언어(Bildsprache)를 사용해 자신과 당시의 실존적 위기를 고발하고 영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형상 언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상징성이나 함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과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상 언어의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 세계에 함축돼 있는 신앙적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형상 언어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각 형상 언어들의 통계와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나아가 각 형상 언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에 집중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의 언어들을 재조명하고 저자가 의도하는 궁극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본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형상 언어

요한계시록 저자의 실질적인 경험과 인식 세계를 토대로 하는 형상 언어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산재해 있다. 저자는 형상 언어들을 사용해 영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학자들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틀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필자는 요한계시록의 형상 언어의 세계를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재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리, 식물, 동물, 인간, 광물과 관련된 형상 언어들이다. 이런 영역에 국한해 요한계시록의 형상 언어들이 재구성 될 것이다.

형상 언어의 세계

1) 형상 언어의 기원

형상 언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성경적 전통과 어떤 관

	지리와 관련 된 형상 언어	빈도수	식물과 관련 된 형상 언어	빈도수
1	땅(gä)	64번	나무(dendron)	4번
2	바다(thalassa)	17번	가지(xylon)	6번
3	유리바다(thalassa hyaline)	2번	풀(chortos)	2번
4	섬(näsos)	3번	실과(opora)	1번
5	산(oros)	8번	열매(karpos)	1번
6	광아(erämos) 물(hydor)	3번	포도주(oinos)	8번
7	강물(potamos) 샘물(pägä)	20번	포도나무(ampelos)	2번
8	장소(topos) 도시(polis)	8번	기름(elaion)	2번
9	바빌론(babylon) 예루살렘(Jerusalem)	22번	올리브나무(elaia)	1번
10	성벽(teichos)	6번	종려나무가지(phoenix)	1번
11	대문(pylon)	6번	만나(manna)	1번
12	문(thyra)	3번		
13	아마겟돈(harmagedon)	1번		

박 두 환 서울신대를 나와 서강대학교대학원 종교학과(M.A.), 독일 베를린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다(Dr.Theol.), 지금은 나사렛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다.

	인간과 관련된 형상 언어	빈도수	동물과 관련된 형상 언어	빈도수	광물과 관련된 형상 언어	빈도수
1	인간(anthropos)	20번	짐승(thäriön) ¹	30번	금(chrysos) 금으로 된(chrysus)	4번 13번
2	땅 위에 사는 자 (tous kaloikountas epi tes ges)	10번	생물(zoon)	15번	은(argyros) 은으로 된(argyros)	1번 1번
3	남자(änär, arsän)	3번	사자(leon)	6번	놋쇠 (chalkolibano)	1번
4	여인(gynä)	19번	표범(paradalis)	1번	수정(krystallos)	2번
5	신부(nymhä)	4번	곰(arkos)	1번	유황(theion)	4번
6	정결을 지킨 여인 (parthenoi)	1번	독수리(aetos)	3번	철(sidäros)	4번
7	음녀(pornä) 음행한 자(pornos) 음행(porneia)	14번	말(hippos) ²	15번	진주(margäritas)	4번
8	아이(teknon) 아들(hyios)	8번	메뚜기(akris)	2번	돌(lithos)	7번
9	상인(emporoi)	4번	전갈(skorpios)	3번	쫓대(lychnia)	6번
10	선원(kybernätäs)	1번	개구리(betrachos)	1번		
11	귀족들(megistanes)	2번	개(kyon)	1번		
12	마술쟁이(pharmakeia)	2번	새(orneiona)	3번		
13	마술(pharmakeia)	2번	날개(ptyx)	3번		
14	거짓말쟁이(pseudäs)	2번	뿔(keras)	8번		
15	거짓예언자 (pseudoprophätäs)	3번	꼬리(ura)	3번		
16	영혼(psychä)	7번				
17	생명(Zoä)	17번				
18	죽음(thanatos) 죽은(nekros) 죽다(apothnäskein)	24번				
19	낳다(tiktein)	4번				
20	올다(odines)	1번				
21	살(sarx)	3번				
22	피(haima)	17번				
23	종기(helkos)	2번				
24	머리(kephalä)	15번				
25	이마(metopon)	8번				
26	눈(ophthalmos)	9번				
27	귀(us)	2번				
28	입(stoma)	15번				
29	얼굴(prosopon)	9번				
30	손(cheir)	17번				
31	발(pus)	10번				
32	면류관(diadämä)	3번				

련을 맺고 있는지는 전승사적 연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앞서 필자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형상 언어들(지리, 식물, 동물, 인간, 광물과 관련된 형상 언어)을 분류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

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형상 언어를 사용함에서 가능한 기독교의 거룩한 전승들 즉 구약 성경과 유대의 전승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된 보석들도 대제사장의 흉배에 장식돼 있는 보석들과 연관돼 있다.

사탄을 상징하는 옛 뱀 역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뱀의 형상을 고려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리스도론을 상징하는 어린양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제사 전승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양에 관한 전승뿐 아니라 예언과 묵시 문학에 나오는 양에 관한 전승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초기 기독교에서 사용된 어린양 전승도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전승사적 연구는 요한계시록의 형상 언어에 대한 이해의 전제이다.

이와 같이 전승사적 토대 위에 사용된 형상 언어들과 달리, 유대교나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형상 언어들은 그 당시 이방 세계에 편만해 있던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특별한 예가 바로 ‘용’이다. 용은 현재와 임박한 미래에 활동하는 사탄의 전승사적 형상 언어가 아니라 그 시대 이방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형상 언어이며 이것을 사용하면서 전승사에 나오는 옛 뱀임을 확실히 밝혀 주고 있다.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창세기의 뱀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탁월하며, 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큰 도전이 되고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³⁾

2) 형상 언어의 활용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형상 언어들의 사용을 통해 신학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묵시적 예언서라 할 수 있다. 형상 언어들 속에 함축돼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 예언적 형상 언어에서 발견되는 세밀한 차이점들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은 더욱 강조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상 언어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상징(Symbol)⁴⁾, 2)유형(Typus), 3)알레고

리(Allegorie), 4)은유(Metapher)⁵⁾, 5)비교(Vergleich).

형상 언어의 신학적 의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왜 이런 형상 언어들을 즐겨 사용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저자는 단순히 개인적 문학 장르의 선호도를 들어 대답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형상 언어들은 단순한 의미에 머물지 않고 더욱 심오해지는 것이다.

저자는 형상 언어들을 서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신학화(神學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묵시적 종말론의 시각에서 형상 언어들을 배열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학적 구조 속에서 형상 언어들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형상 언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대교적 배경 하에 지니고 있는 의미들로 사용되지 않고 철저히 기독교적 의미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런 형상 언어들은 저자의 신학적 구조 속에서 독창적 의미로 재탄생된다. 따라서 형상 언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이런 신학적 구조들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1) 신학적인 이원론과 형상 언어

요한계시록의 형상 언어들은 전체에 걸쳐 신학적인 이원론 구조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와 싸움 등)이고, 둘째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싸움(어린양과 두 짐승과의 싸움)으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립이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립적 구조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이다. 이런 대립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신학적 전제라 할 수 있다.

사탄의 파워 구조는 요한계시록 12~13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위해 동물 형상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사탄의 파워 구조는 용(사탄) - 바다에서 올라온 테리온(짐승 = 용의 하수인) - 땅에서 올라온 테리온(짐승 =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파워 구조의 중심은 테리온이 아니라 바로 용(옛 뱀 = 사탄)이다.

이들은 각각 지상에서 용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을 실행시켜 나간다. 자신들의 본질을 깊숙이 감추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질식시킨다. 하나님의 창조에



형상 언어들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인 그리스도론, 사탄론, 교회론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좌)로 묘사된 사자와 어린양(우)의 모습.



대해 파괴를 피하고 그 권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결속돼 있는 파워 구조로서 지상에서 활동한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의해 파악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파워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그것은 하나님(파워 구조의 주제) - 어린 양/사자(그리스도) - 교회(제자와 사도 = 참 예언자)로 구성돼 있다. 이런 파워 구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저자는 자신이 직면한 시기를, 나아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직면한 실존을 묵시적 시기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파워 구조와 사탄의 파워 구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교 시기로 간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가 선택한 것이 바로 형상 언어이다.

2) 삼중적인 세상 구조와 형상 언어

저자의 삶이나 경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형상 언어들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저자의 문학적 이해와 신학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즉 여기서 세상은 삼중 구조 -천상과 지상 그리고 지하 세계- 로 구분돼 있는데, 이런 구조는 형상 언어들의 사

용으로 인해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천상 세계는 하나님, 생물, 천상의 어린양, 천상의 여인, 천상의 붉은 용, 보석 등의 형상 언어들로 표현된다. 지상 세계는 지상의 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 등의 형상 언어들로 표현된다. 또 지하 세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지옥의 메뚜기 군대 등의 형상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참고 문헌

- W. Bousset, *Die Offenbarung Johannis*, KEK XVI 1906(1907); E. Lohmey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920-1934, ThR NF 6, 1934, 269ff.; 7, 1935, 28ff.
- G. Bornkamm, *Die Komposition der apokalyptischen Versionen in der Offenbarung des Johannes*, ZNW 36, 1937, 132ff.(= G.B., *Studien zu Antike und Urchristentum*, BevTh 28, 1959, 204ff.).
- G. Delling, *Zum gottesdienstlichen Stil der Johannes-Apokalypse*, NovTes 3, 1959, 107ff.
- T. Holtz, *Die Christologie der Apokalypse des Johannes*, TU 85, 1962.
- E. Lohse, *Die att. Sprache des Sehers Johannes*, ZNW 52, 1961, 122ff.
- _____,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NTD 11, 1993.
- A. Strobel, *Ablassung und Geschichtstheologie der Apokalypse nach Kap. 17, 9-12*, NTS 10, 1963/64, 433ff.
- U. B. Müll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ÖTK 19, 1984.
- J. Roloff,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ZBK NT 18, 1987.
- J.-W. Taeger, *Johannesapokalypse und johanneischer Kreis*, BZNW 51, 1988.
- Park, Doo Hwan, *Tiere und Farbe in der Offenbarung - Eine Untersuchung zur Herkunft, Funktion und theologischen Bedeutung der Tier- und Farbmotiv in der Apokalypse des Johannes*, Diss, Kirchliche Hochschule Bethel in Bielefeld, 1997.
- _____, "Die Angelogie der Offenbarung des Johannes - Eine Untersuchung zur Vierfarbigen Pferden in Apk Joh 6,1-8 -",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 33, 2004, 91-106.
- O. Böcher, 「요한 묵시록의 난제 열두 가지」(박두환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6).
- E. Lohse, 「요한계시록」(박두환, 이영선 공역, 한국신학연구소, 2000).

수반하고 있다.

3) 다양한 신학적 주제와 형상 언어

그뿐 아니라 형상 언어들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 즉 그리스도론, 사탄론, 교회론, 천사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탄론과 관련해 용과 옛 뱀 그리고 테리온과 같은 형상 언어들이 사용된다. 저자는 용과 옛 뱀을 통해 사탄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테리온(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테리온(짐승)이 사탄의 하수인임을 상징한다.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군대들을 표현하기 위해 말과 메뚜기 그리고 전갈과 같은 형상 언어들이 사용된다.

또 저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 어린양과 사자와 같은 형상 언어들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 계획을 실현시키는 분으로 저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고백하고 표현한다. 그분은 어린양과 사자로 상징된다. 게다가 이 형상 언어들은 천사론과 관련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의 두 날개나 6장에 나오는 네 색깔 말들과 같은 형상 언어들이 사용된다. 곧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정말로 종말에 다칠 재앙을 몰고 오는 천사들로 간주된다.

그리고 저자는 교회론과 관련해 형상 언어들을 사용한다. 12장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로 치장한 천상의 여인(우주적 여인)과 뱀에게 긴박하게 쫓기고 있는 초라한 여인(지상의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다.

맺는 말

요한계시록의 형상 언어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은 21세기 한국 교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교회는 형상 언어들의 긍정적인 가치

를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들은 신화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앙적인 언어로 21세기에도 계속 연구돼야 한다. 또한 비역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언어들로 새롭게 부각돼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책이고 1세기 말의 타락과 도전에 대해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신앙 지도자의 삶과 신학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형상 언어들을 단순히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해석되는 잘못은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독교 전통의 과거와 현재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신앙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

각주

- 1) 필자는 테리온에 대해 이미 학계에서 여러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참조, 박두환, 「사탄의 파워 구조, 요한계시록 12-13장에 나오는 용과 짐승의 관계를 중심으로, 밀레니엄과 신약 성경의 종말론」(한국신약학회편, 신약 논문 제5권, 한들출판사, 1999), 152-153. _____, 「하나님의 종말적인 적대자 2, 요한계시록 13장 1-9절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테리온에 대한 연구」(한국신약학회편, 신약논문 9권 2호, 한들출판사, 2002), 555-578. _____, 「하나님의 종말적인 적대자 3, 땅에서 올라온 다른 테리온(계 13:11-19)과 666에 대한 연구」(한국신약학회편, 신약논문 제10권 1호, 한들출판사, 2003), 192-227.
- 2) 필자가 발표한 글을 참조하라: Park, Doo Hwan, Die Angelologie der Offenbarung des Johannes, Eine Untersuchung zur Vierfarbigen Pferden in Apk Joh 6,1-8,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Vol. 33, 2004, 91-106.
- 3) 필자가 발표한 글을 참조하라: 「요한계시록의 상징에 관한 연구」(박두환, 신약 논문 9권 3호, 2002), 753-778. Park, Doo Hwan, Tiere und Farben in der Offenbarung, Diss. Eine Untersuchung zur Tiermotive und Farbmotiv in der Offenbarung, Bethel/Bethel, 1997. _____, 「마가복음 13장과 하나님의 종말적인 적대자」(신학사상 123집, 2003년 겨울), 177-202.
- 4) 파울 틸리히(Paul Tillich)에 따르면 상징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닌다. (1)지시적인 특성(Hinweis-Charakter): 대상은 상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2)대리적 특성(Repräsentativer Charakter): 상징은 실재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바로 역사와 상징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상징은 역사적 조건 하에서 고려돼야만 한다. (3)기능의 변화(Die Veränderung der Funktion): 상징의 기능은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4)실재의 의미 부여(Die Sinngebung der Wirklichkeit): 상징에서 실제 그 자체가 아닌 실재의 해석이 중요하다. (5)실재의 다의성(Die Ambiguität der Wirklichkeit): 상징은 주어진 실재 속에서 다의적일 수 있다(참조, P. Tillich, Offenbarung und Glaube, Schriften zur Theologie II, 139-141).
- 5) 은유(Metapher)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네 가지 은유적 전의들(vier Bedeutungsübertragungen der Metapher)을 지적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유비에 따른 은유적 전의'이다(참조, Aristoteles, Poetik 21, 1457b; A. Gröninger, Die Sprache des Menschen, 95-109). 그 다음에 은유와 상징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은유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관점은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언어 이해를 토대로 한다(참조, Weder, E. Güttgemanns, W. Harnisch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
- 6) 참조, _____,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별세 신학」, 『별세의 삶 통권 4호』(2004 여름), 92-103.